

‘최고의 소리꾼은 누구’... 임방울국악제 자웅 겨룬다

제32회 전국대회 9월 4~5일·12~13일
명창 대통령상 등 총상금 1억9800만원
아마추어 장기자랑·전야제 축하공연
김정훈·원장현·김준영·신승태 출연도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 신인을 발굴하는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34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을 비롯한 8개 경연장에서 펼친다.

이번 국악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축하하고, 국창 임방울 선생 서거 65주기를 기리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국악제는 9월 4~5일 전야제와 학생부 경연, 12~13일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으로 구성된다. 학생부는 판소리, 기악, 무용 부문으로, 일반부는 판소리, 농악,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병창, 퓨전국악 부문으로 치러진다.

판소리계의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명창부 경연은 해마다 국악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국내 최고의 국악 명인을 발굴하는 명창부와 기악, 무용 부문 본선은 9월 13일 오후 2시4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에서는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영예의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명창부 최우수상 상금 2000만원을 포함해 전체 시상금은 1억9800만원 규모다.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은 9월 12일부터 본격화된다. 이날 5·18기념문화센터 대동을 등에서 판소리 명창부, 무용, 기악 일반부 예선이 열리고, 광주공



원 청춘빛포차광장 등에서는 농악, 판소리 일반부, 가야금병창, 시조, 퓨전국악 일반부 예·본선이 진행된다. 학생부 경연은 9월 5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등 4곳에서 열린다.

순수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자진인 ‘임방울판소리 장기자랑’은 9월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판소리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입상자 50명에게 총 1000

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올해는 행사 진행상 선착순 10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국창 임방울 선생 예술혼 모시기는 9월 4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내 임방울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6시1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는 전야제 축하공연 ‘국창 임방울의 소리 맥’이 펼쳐진다. 국악인 김신옥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

연은 국창 임방울 선생의 기록영상으로 문을 연다.

전야제에서는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연옥, 정혜빈, 박자희, 최잔디 명창이 남도민요 ‘달맞이’, ‘팔팔기’, ‘풍년경사’로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애창곡 ‘쑈대머리’와 춘향가 중 압행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 박석고개에 올라 지난날을 회상하는 ‘박석저’ 대목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정훈 명창과 황소희 명무의 무

대로 만날 수 있다.

지난해 농악 최우수상을 받은 무돌농악팀은 품물 판국으로 축제의 흥을 더한다. 특별 초청 무대로는 원장현 명인이 김준영 명인의 장단에 맞춰 대금산조를 선보이며, MBN ‘현역가왕2’ TOP4로 선정돼 활발히 활동 중인 신승태가 국악가요 ‘세상모르고 삼았노라’와 ‘장부타령’, ‘연연’을 들려준다.

김중채 이사장은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국악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수상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 관리가 주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품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악의 성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품류 넘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문화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고문서 속 조리법으로 되살린 ‘미향 남도’의 뿌리

전남 종가에 대대로 전해온 고문서를 통해 남도 음식문화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 서적이 발간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최근 전남 종가 음식서 복원사업의 성과를 집대성해 ‘전남종가음식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적에는 나주 풍산홍씨 석애문중의 ‘음식보’와 담양 홍주송씨 하심당가의 ‘하심당가음식법’을 한 권에 담았다. 18~19세기 전남 종가의 조리법과 음식, 생활 문화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음식보’는 현재까지 호남에서 처음 발굴된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로 평가된다. 18세기 나주 사대부가 여성들의 지식 전승을 보여주는 자료로, 39개 음식 방면 즉 조리법을 통해 당시 식생활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서적에는 나주 영산강 유역의 숨어 새끼인 ‘모장’을 활용한 자림편, 파초를 넣은 동치미, 전남 방언이 반영된 모회편 등이 담겼다. 태화주·백병주·진향주 등 다른 한글 조리서에서 보기 어려운 음식명과 제조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보’는 지난 2023년 전남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심당가음식법’은 19세기 후반 담양 지역에서 한글로 기록된 음식서로, ‘음식보’에 이어 호남에서 두 번째로 발굴된 한글 조리서 사료다. 현재 남



호남 최초 한글 조리서 ‘음식보’ 원문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종가음식서’ 발간 호남 최초 한글 조리서 ‘음식보’ 등 2종 수록

아 있는 7장 13쪽에는 칠일주·소주삼해주·소곡주 등 술 7종과 약과·배추김치·동치미·준어쥬·전엽만두·어만두 등 음식 7종이 실려 있다. ‘호주’와 ‘모쌀’, ‘동침지’, ‘너럭지’ 등 전라도 지역의 언어와 남방 쌀 문화권의 양조 특성이 담겨 19세기 담양 종가의 식생활과 여성 문자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희소한 자료다.

이번에 발간된 ‘전남종가음식서’는 두 음식서를 단순히 영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장 경위와 작성 배경, 역사적 가치를 밝힌 해제와 함께 고한글 원문 판독, 현대어역, 상세 주석을 수록한 게

특징이다. 문헌학·국어학·음식문화사 연구자와 음식·전통주 전문가가 참여했다. 기록 속 음식과 술을 실제로 재현했으며, 현대 독자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조리 과정과 재료를 메시기로 정리. 원 자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원서 이미지도 함께 실렸다.

두 음식서는 시기와 지역은 다르지만, 종가 여성들이 살림과 제사, 손님맞이 과정에서 축적한 조리 지식을 한글로 기록하고 후대에 전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전남종가음식서’는 남도 음식의 특징 메뉴를 소개하는 책을 넘어, 오늘날 ‘미향 남도’로 이어진 음식문화의 뿌리와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출발점이자 지역 생활사·여성사·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라는 의미가 있다.

홍영기 원장은 “이 책은 오래된 조리법을 되살린 성과를 넘어, 남도 음식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가문과 지역 안에서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 종가 여성들의 지혜와 생활 문화가 연구자뿐 아니라 시민의 식탁과 교육 현장에서도 새롭게 활용되도록 기록유산의 보존·연구·확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클래식·국악·연희로 만나는 색다른 과학

광주과학관 ‘과감한 콘서트’ 10월 28일까지 총 8회 선봬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 전남광주과학문화거점센터(센터장 손성근)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 과학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과감한 콘서트’를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선보인다.

‘과감한 콘서트’는 ‘과학예술 감각’의 줄임말로, 과학을 문화예술과 접목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과학문화 공연 프로그램이

다. 2026년 전남·광주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 지역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2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린 첫 무대는 크리에이티브하트의 클래식 공연으로 꾸며졌다. 이어 29일 과학콘서트(교육극단파랑새·과학관

상상홀), 9월 5일 클래식 공연(크리에이티브하트·해남 자원순환복합센터), 9월 12일 전통연희(전통연희놀이연구소·과학관 야외공연장), 9월 13일 전통 국악(루트머지·과학관 야외공연장), 9월 20일 과학콘서트(교육극단파랑새·해남공룡박물관), 10월 6일 연희놀이 공연(전통연희놀이연구소·무안오룡초), 10월 28일 전통국악공연(루트머지·무안행복초) 등 광주과학관을 비롯해 해남, 무안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총 8회 운영된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광주과학관 전남광주과학문화거점센터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사진과 이미지 기반 작업...매체의 현재 되묻기

(재)광주비엔날레, ‘제4회 GB 작가탐방 2026’
‘윤태준×스페이스 디디에프’ 내일 오후 4시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가 25일 오후 4시 스페이스 디디에프(전남광주 동구 충장로46번길 8-8 1층)에서 ‘GB 작가탐방 2026’(GB Artist Focus 2026)의 네 번째 프로그램 ‘윤태준×스페이스 디디에프’를 갖는다.

이번 대답에는 윤태준 작가(사진)와 김주원 큐레이터가 함께한다. 먼저 사진을 매개로 물질과 비물질, 현실과 디지털, 이미지와 감각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해 온 윤태준 작가는 사진과 디지털 스크린, 인쇄 매체와 설치적 요소를 함께 끌어들이며 이미지가 생성되고 변환된 뒤 다시 물질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실험하며, 매끄러운 디지털 이미지와 손에 잡히는 물질성이 맞부딪히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틈에 주목해 왔다.

비평에는 대전시립미술관과 대구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한 김주원 큐레이터가 참여한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의 실험에 이르기까지 매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확장 과정을 조명하고,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와 내러티브가 어떻게 심화돼 왔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스페이스 디디에프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윤태준 작가의 개인전 ‘신호 없는 레이더’가 함께 진행돼 대담과 전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남광주 총창로에 자리한 대안 예술공간 스페이스 디디에프(Space DDF)는 2021년부터 동시대 사진과 이미지 기반 작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곳으로, 전시와 워크숍,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작가와 기획자들의 실험적 실천을 소개하고 창작자 간의 교류와 협업을 지원해 왔다. 사진을 기록의 매체로만 바라보기보다 이미지가 기술과 물질, 감각, 사회적 조건과 만나는 방식에 주목해 온 공간의 지향이 이번 대담의 밑도를 더한다.



민을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비평가의 시선을 통해 작업의 궤적을 함께 짚는 자리로 마련된다.

네 번째 회차인 이번 프로그램은 동시대 사진과 이미지 기반 작업을 실험해 온 공간에서 사진이라는 매체의 현재를 되묻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광주의 시각예술 현장을 지향해 온 7개 공간을 무대로 순차 진행되며, 선정된 작가와 참여 공간은 정승원×예술공간 빙, 박이론×공유공간 뽕뽕브릿지, 이조흠×오버랩, 윤태준×스페이스 디디에프, 권승찬×이강하미술관, 정덕용×지구발전오라, 설박×호랑이가시나 무창작소(진행 순) 순이다. 이번 회차에 이어 9월 17일에는 이강하미술관에서 권승찬 작가와 이은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10월 12일에는 지구발전오라에서 정덕용 작가와 김성우 독립큐레이터(프라이머리프랙티스 설립자)가 만나는 자리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예술과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내 신청양식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작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 이야기 등을 담은 인터뷰 영상은 추후 광주비엔날레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문의 062-608-4273.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